비전개발 4주차 소감문

21600685 조예성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동방박사, 뉴턴, 파스칼 등 훌륭한 학자들의 삶을 예로 드시면서 이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았던 진리를 생각해보았다. 어쩌면, 우리가 왜 공부를 하고 무엇을 위해 일을 하는 가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 의식이 불분명해진 채로 그저 세태에 맞게 따라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 가장 중요한 돈이라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그저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이 성실이라는 덕목이 되어 열심히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럴수록 더 주를 바라보아야 한다. 대학에 왔으니 공부는 해야 되지만 목표가 그저 수단이 되는 취업, 학점을 위함이면, 주님은 어디에도 내 마음 속에 앉으실 자리가 없으시게 된다. 왜 공부를 하는 지에 대한 목표 의식을 분명하게 하자. 우리가 왜 지식을 알아야 하는 지, 이 세상에 만들어놓은 이치를 공부하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결국 어떻게 그러한 지식에 절제를 하고, 인내를 하여, 경건을 지켜서 사랑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이유로 공부를 하는 한동인들은 몇이나 될까… 나는 온전히 그러한 맘을 가지고 공부에 임하고 있는가.. 다시 뒤를 돌아보아야 하고, 방향을 재정비 해야한다. 무엇을 위해, 밤새가며 공부하는지… 무엇을 위해 죽어라 달리는 지.. 주님인지.. 자신인지..